

총 폐정맥 환류 이상증의 외과적 치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영학 · 김대영 · 정원상 · 김혁 · 지행욱

총 폐정맥 환류 이상증(TAPVR)은 질환의 해부학적 구조에 의한 심한 심혈류 장애 때문에 대체로 영·유아의 이른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며, 아직도 비교적 높은 사망율을 보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79년 12월부터 11월까지 14명의 TAPVC 환자에서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아 11명 여아 3명이었고 연령은 생후 23일부터 9세까지 다양하였으며 8명에서 생후 3개월 이전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TAPVR의 Type은 Supracardiac type이 9례로 가장 많았고 cardiac type 2례, mixed type 2례, 그리고 infracardiac type이 1례 있었다.

동반된 질환으로는 PDA 2례, 경증의 승모판막 폐쇄부전, 폐동맥 판막 협착, 좌심 미발육이 1례 있었다.

수술 방법으로는 좌심방-수직정맥 (Vertical vein) 측측 문합술 3례, 총폐정맥간 (CPVC)-좌심방 측측 문합술 6례, 관상정맥동-좌심방 연결 4례가 시행되었다.

술후 30일 이내에 6명이 사망하여 42.9%의 사망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5명은 3개월 이내의 유아였다.

술전 RV/LV pressure ratio의 측정이 가능 했던 12례 중에서 5례가 1.0이상이었으며 이중 4명이 사망하였다.

TAPVR는 다른 질환에 비하여 현재에도 비교적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른 수술 시기와 술전 높은 폐동맥 압력이 사망율을 높이는 위험요소 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더 좋은 성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